

2024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7

ISSU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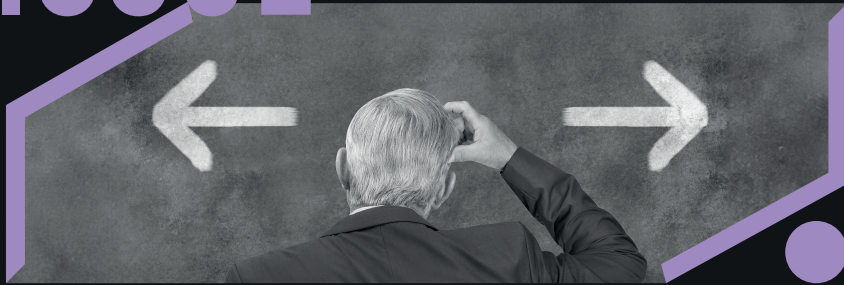
인생3막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WHERE
edition

ISSUE FOCUS

인생3막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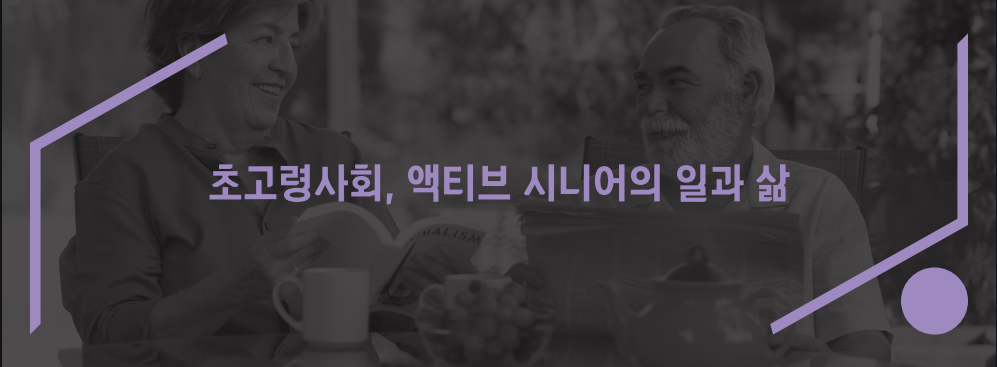
ISSUE



- > 나이 들에 따라 노년기 일과 삶도 노화되는가?
-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 >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평생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2024년 통계청 노인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소비·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특징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액티브 시니어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니어 평생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RE EDITION'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 현장의 이슈와 사례를 발굴하여 평생학습의 현재와 현황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액티브 시니어의 일과 삶

액티브 시니어는 출생연도에 따라 199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다. 2023년 말 기준 각각 705만 명, 954만 명으로 총 1,659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집단이다. 이들은 과거 고령층보다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건도 나은 편이지만, 실제 액티브 시니어의 상황은 환경상의 이유에 따라 편차가 있다.

국가 주도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 한국은 초고령화조차 조기 달성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다.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정해진 길’이 명확했다. 입시 교육에 집중해 졸업 후 취직하면 회사에서 집합 교육을 받고, 선배나 사수를 통해 도제식 교육을 병행했다. 이제는 각자 길이 다르다. ‘60세, 환갑!’이라고 해도 누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누구는 병석에 누워있고, 누구는 최고경영자로 전성기를 누린다. 대중이 외길을 향해 달려 나갔던 과거와 달리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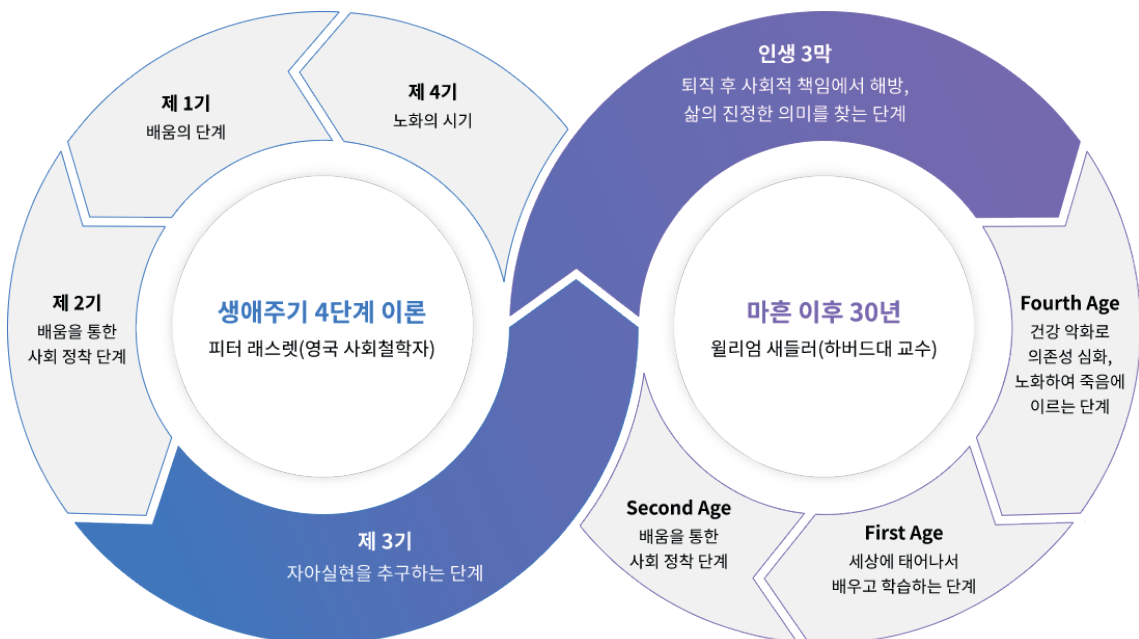
인생 3기를 잘 보낸다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단축하거나
겪지 않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서 시니어의 일과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니어의 인생 3막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고 계신 ‘씨드에이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씨드에이지는 인생 3막 시기를 뜻합니다. 기대 수명이 60세에는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생 전반에 고생했으니 후반에 즐기세요’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래스렛은 생애주기를 4단계로 나누길 주장했습니다. 인생 1기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배움의 시기, 2기는 대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시기, 3기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단계, 4기는 노화로 인해 아기처럼 다시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생애주기의 특징은 나이로 그 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씨드에이지는 은퇴했지만 아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3기에 해당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기업입니다. 인생 3기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잘 보낸다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단축하거나 겪지 않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씨드에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3기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니어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씨드에이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15년간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일했는데 외국계 금융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본, 한국, 중국 사회가 시간차이를 두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일본 시니어 산업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나 일본에 비해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시니어산업에 대해 깊게 파고들면서 한국과 격차를 체감하며 시니어를 위한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가 된 씨드에이지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지원, 사람책세미나, 일본 선진사례 탐방,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대부분 60세까지는 계획하지만 85세까지는 계획이나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수시대에 이제 우리가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3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현역'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 봉사, 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살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해도, 이후의 삶이 30년 이상 남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

60세 이후, 30년 이상 남은 인생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액티브 시니어, 신노년층 등 해당 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는 예전의 노년층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장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전의 세대보다 노후가 훨씬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퇴직하면 몇 년 쉬다가 죽음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 '나'를 위한 소비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과거 노년층에 비해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많고, 요즘은 옵션도 많아서 돈을 쓸 때는 까다로운 소비층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업을 위해서는 요즘 시니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의 50~60대는 대학 졸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교육 여건도 좋아져서, 노년층을 위한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일반교육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소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노년기 행복한 삶을 위한 일, 주거, 건강, 재무, 취미가 필요합니다.

”

시니어의 평생 현역과 사회 활동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시니어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부분을 복지의 영역으로만 바라봤는데, 복지로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이 40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서울시는 ‘서울런 4050’이라는 40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세대에 집중되었던 일자리 교육을 ‘전환기’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기존 경력이 소용없던 ‘보람일자리’ 사업 외에도 ‘시니어 인턴십’ 같은 전직과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사회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보와 방법에 대한 접근성도 더불어 나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년기 삶을 위해 일자리 외 다른 분야에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최근 시니어 주거 관련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AIP(Aging In Place :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를 비롯 프리미엄 실버타운, 보급형 주거형태, 공동체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괄공급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실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시니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생의 주제입니다.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60대 전후면, 간의 생활습관이나 유전병 등에 따라 신체적인 노쇠도 차이가 무척 크게 납니다. 심지어는 생과 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의 시니어들은 운동, 먹는 것,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정보 습득과 활동, 소비에 적극적입니다. 더 나아가 ‘노화방지’, ‘회춘’ 등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각종 제약회사, 식품회사가 시니어 건강관리 신제품 분야에 뛰어들었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려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경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니어들은 체계적으로 재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재테크나 재무설계에 취약하고, 생각보다 돈과 관련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가생활이나 취미를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취미가 없는 거죠. 산업 사회를 빠르게 거치며 효율성을 추구했던 지금의 시니어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특강 형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맞춤 서비스

액티브 시니어의 일과 삶에 ‘평생교육’이라는 ‘넛지(자유주의적 개입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노년기를 맞이한 액티브 시니어에게 ‘대량생산-대량판매’하는 것과 같은 매스(mass)방식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편견을 버리는데 너무 늦은 경우란 없다’고 했다. 액티브 시니어가 참여하는 평생교육은 이제 막 발전을 위한 시도가 다양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시니어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일과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하여 시니어-청년 지식노하우 공유 플랫폼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를 탐방하는 ‘딴중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니어 먹거리를 위한 큐레이션 구독 박스 ‘지혜드림’은 액티브시니어 시기에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보자는 서비스들입니다.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례 소개 겸 나눔 활동으로 ‘신중년과 지역, 잇다’ 포럼이나 ‘시니어 살롱’, ‘글로벌시니어트렌드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인생나눔교실’과 같은 시니어와 청년 세대를 연계하는 공감형 멘토링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가치 제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삶에는 모범답안처럼 보이는 길이 있었지만, 새롭게 도래한 초고령화 사회는 모두가 처음이라 이정표를 찾고 있습니다. 씨드에이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누구나 처음 겪는 초고령화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방안을 발굴하고 실험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을 이어줌으로써 액티브 시니어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입니다. 시니어의 일자리 연계 및 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도 궁금합니다.

‘프로젝트’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험 노하우와 업무 역량이 있는 시니어와 신생기업을 연결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일 연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운영했는데, 올해 초부터 ‘시니어 살롱’, ‘시니어 지역관광해설사’ 등 씨드에이지가 직접 시니어의 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니어 살롱’은 액티브 시니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취미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창직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누군가의 이력서를 봐주거나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니어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씨드에이지와 관광업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과 함께 만들고, 실제로 ‘딴중일기’를 운영할 때 교육 수강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되어 시니어 지역관광해설사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로 일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자 지원인 것 같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관련 일자리 사례를 좀 더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예버영코리아가 대표적입니다. 2013년부터 데이터 라벨러¹⁾와 같은 직업군을 통해 55세 이상 한국의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데, 시니어는 오랜 시간동안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하루에 3~4시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50플러스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협회, 시니어클럽 등 기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업들과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1) 사진 및 동영상에 등장하는 동물, 사물, 사람 등의 데이터를 시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람

“

은퇴 후 삶에 최적화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

시니어의 일자리 사업에서 잠깐 소개된 ‘탄중일기’는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세요.

‘탄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중일기’는 사람책을 만나 시야를 넓혀서 퇴직 후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넛지(Nudge)²⁾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잡러가 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독립서점을 꾸리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실제 이야기를 접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병원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실상 후기 고령자 시기(75세 이후)부터 병원 인프라가 중요해집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일과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탄중일기가 인식 전환의 마중물을 되었으면 합니다.

탄중일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람책을 여럿 만나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퇴직 후 지역으로 이주하여 길을 개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역의 먹거리나 자연 풍광 등 체험도 있습니다. 올해는 원주 내 소멸 지역인 ‘중앙동’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시장 해설

프로그램이 1시간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 참가자보다 단체 참가자가 늘고 있어서 일부 맞춤형으로도 진행하며, 지역 양조장 시음, 뮤지엄 산 관람, 응심이 만들기 교실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실제 200명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참가자 중 귀촌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귀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퇴 후 삶에 주체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탄중일기’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만큼, 공동체와 연결되고 공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시니어가 개인의 관심사를 찾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업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 문화페스티벌’을 주최해 어르신을 포함해 전 세대가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신(新)노년세대를 대표하는 실버 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세대의 문화활동 가치를 확산·지원하는 ‘실버 마이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써드에이지(주)
탄중일기



로컬 인사이트 투어 프로그램 예시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역과 시니어"	
탄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	영월, 횡성, 홍천 강원도 사례
탄중일기	남들은 퇴직하고 어디서 무엇을 할까
탄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 (2024 원주편)	신중년의 관계인구 이야기
탄중일기 with 원주편	터득굴 이야기와 소원의 길 산책
탄중일기 with 원주편	지역 관광 및 네트워킹
탄중일기 with 원주편	모월양조장과 협동조합 전통주 체험
탄중일기 with 원주편	지역 관광 및 둘러보기
탄중일기 with 원주편	중앙동 터줏대감이 들려주는 전통시장

2)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라는 뜻(네이버 어학사전)



시니어 사업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올 여름부터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니어 주거' 세미나에 대한 수요가 큼니다. 세미나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시니어 주거정책 동향과 쟁점, 시니어 주거와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위험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중년 지역, 잇다' 세미나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라 지역에서 신중년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로 첫 번째 행사는 서울에서, 두 번째는 원주에서,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주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포럼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시니어 트렌드가 어떠한지에 대해 지역별·분야별 트렌드를 소개해 액티브 시니어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찾고자 하는 기업 참가자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에게 고령화 중심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서로 놓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외국사례를 많이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도 점차 도입되길 바랍니다.

“

**해외 사례를 참고서로 놓고
고령 사회를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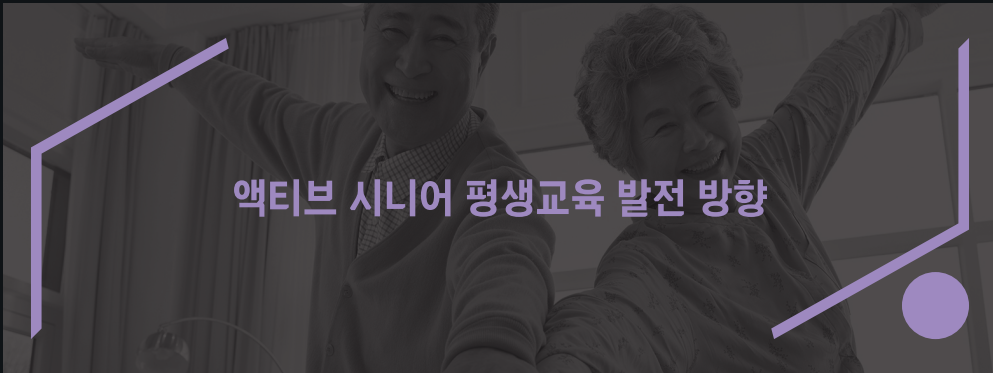
”

**해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사례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벤치마킹 프로그램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탐방'도 운영 중
이신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제지에 '시니어트렌드' 주간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일본 시니어 트렌드를 7번 이상 다뤘습니다. 구독자 중에 일부 뜻이 맞은 구독자들과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의 요양시설, 시니어 케어 및 돌봄 서비스 체험, 시니어 공동 주거,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니어 복지 박람회 등 일본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관련 박람회는 탐방 일정에 꼭 포함시키고 있는데, 노화 정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 사용가능한 조리도구,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 해외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일본 요양병원에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IT 기술,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매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지난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액티브 시니어 평생교육 발전 방향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전에 활용이 가능한 취업이나 사회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와 정책개발 등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이나 액티브 시니어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발전해야 한다.

“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시기입니다.

”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는데,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를 위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처럼 빠르게 달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다방면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지금 시니어는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한국은 현재의 인구 구조로 인해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올 변화가 사회 파괴일지 또 다른 혁신의 기회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른 고정 관념, 연봉 체계 혁신 등 인식 및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사회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평생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배우고 일하고 노는 것을 평생 해야 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비중은 달라 지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복됩니다. 인생은 더 이상 전반전과 후반전이 아니고, 길어진 삶에 다양한 배움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먼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내가 배워서 뭐해'라고 하거나 가족들이 '그거 배워서 뭐해'라는 반응 보다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긍정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이 전하는 가치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시기이며, 이러한 활동들은 세대 간 교류를 늘려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자연스레 기여도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에 참고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 여행'이라 할 수 있는 '로드 스칼라(Road Scholar: 길 위의 학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975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끼리, 50대 이상 퇴직 후 시니어에게 배움의 기회와 여행을 결합해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220명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연간 10만 명이 넘고, 1시간에서부터 1개월 이상 일정까지, 전 세계 150개국, 5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신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가볍게 걷는 것으로 가능한 여행부터 애리조나 사막 트래킹처럼 활동 강도가 높은 것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이혼이나 사별 등을 겪은 시니어들이 혼자 참여할 수 있는 추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이나 철새 도래지 탐방부터 알래스카 횡단 열차나 남극 탐험에 이르기까지 지구별 온 세상이 하나의 학교가 되는데,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지적 탐구욕구, 평생교육과 여행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재미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전부 시니어 세대가 직접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마중물이 될 수 있겠지만,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시간과 역량 자원을 투입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성장시키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시니어 평생교육을 위한 협력과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

시니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학교, 민간기관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지방 학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1978년부터 의과대학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격차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베를린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회원제 ‘프로 제니오레스’라는 자발적인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세미나를 500개 이상 운영하는데 수요자 참여형이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시설을 제공하거나 기획에 참여하고 연구로 뒷받침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든 ID프로그램(Older Adult/ Senior Citizen Free Tuition Program)’이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시니어의 기준은 60세이고, 과정들은 모두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며 대부분의 주립대학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낮에는 젊은이들이, 밤에는 직장인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다니는 형태로 운영하여 대학에 항상 학생들로 붐비죠. 캠퍼스에서는 젊으면 학생, 중년이면 교수라는 도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은퇴 후 액티브 시니어만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퇴직 예비자를 더 이른 시간에 연계하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 평생교육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 노인교육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970년대의 유네스코 평생교육운동과 더불어 노인도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빠른 도입과는 달리 그간 현장에서의 시니어 교육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상황을 반영했고,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 4월 노인 평생교육 기획의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죠.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구조 속에 노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기부여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연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정부 및 민간에서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발전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미네르바형 교육을 운영하여 지금보다 연령대를 확장시키고, 단순 여가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국가 생산성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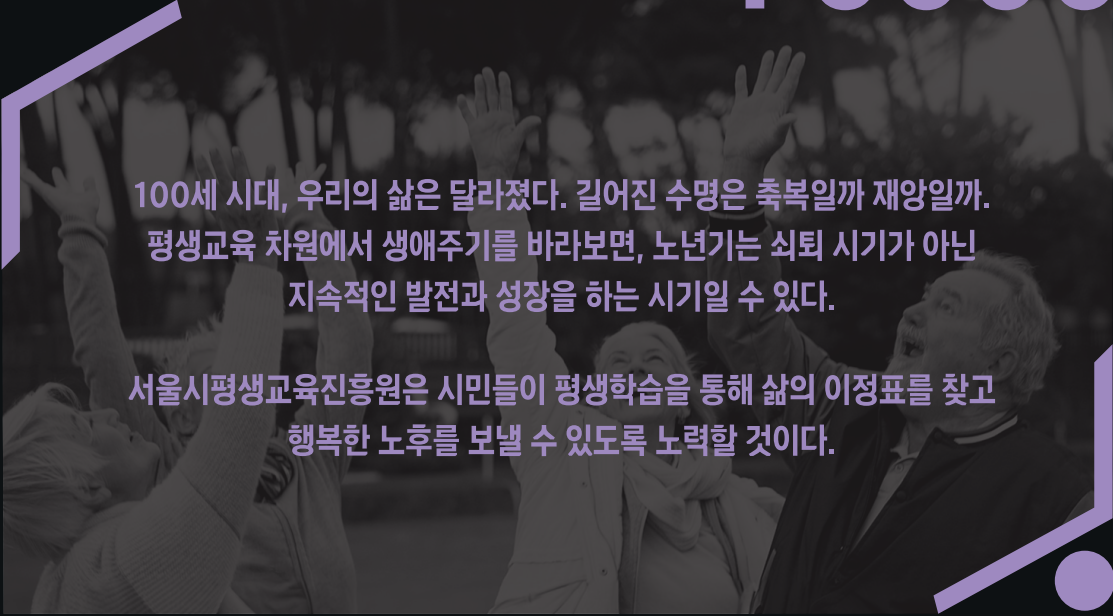
장수 시대,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삶이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인도 철학자 간디의 말처럼, 배움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계발 활동은 생애주기(Life Cycle)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에 비해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시니어의 지속적인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 경제력,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노년기를 맞이한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세분화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일, 주거, 건강, 재무, 취미 등 노년기 삶을 위한 교육 영역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 ‘평생 학습자’로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쓸모를 느껴야 한다. 현재의 공급자 위주의 시니어 평생교육에서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때 정부 예산 편성에 더해 일부 참가비용이 있어야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비용은 연결되어 있다. 노인 복지에서 재정 및 인력의 한계를 겪고 있는 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청년시절까지는 애쓰며 배우던 사람들도 중장년에서 노인이 되기까지는 다소 수동적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곳의 사례를 보면, 시니어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작게 먼저 시작한다. 그 이후 조직을 만들고, 점차 커뮤니티를 확장하며, 대다수가 필요한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도 시니어의,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 발전시키는 시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FOCUS



100세 시대,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애주기를 바라보면, 노년기는 쇠퇴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하는 시기일 수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이정표를 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로,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집필(인터뷰이) : 이보람 대표(써드에이지)

기획/편집 : 이은주, 정미란(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